

여성전문병원 간호사들의 다문화 환자 돌봄 경험

이봉숙*

¹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Lived Experiences of Clinical Nurses Who working at the Women's Hospital Caring for Foreign Wives in Korea: A Narrative Study Approach

Bongsook Yih¹*

¹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결혼이주를 통한 외국여성의 국내이주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등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발맞추어 여성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인식과 돌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외국인 산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임상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서사연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 환자 및 자녀를 돌본 경험이 5년 이상인 임상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국인 환자를 돌본 임상간호사의 경험은 돌봄제공자의 시각에 따라 자민족중심 시각, 수용적 시각, 그리고 문화중심시각으로 나누어 각 시각에 따라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파악해내었다. 특히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및 환자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 돌봄제공자는 스스로를 치료적 돌봄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민감성과 문화중심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caring for foreign wives in Korea. A narrative study approach within the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was appli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0 clinical nurses who had at least 5 years working experiences caring for foreign wives and their children in the Women and Children's clinical setting. The narrative stories of the clinical nurses were analyzed in the frame of culture-bounded nursing care. In the culture-bounded nursing care, ethnocentric viewpoints, acceptable viewpoints, and culture-based viewpoints were identified within the time frame. Significantly, the narrator identified herself as a therapeutic caregiver in the culture-based viewpoints providing tailored caregiving for foreign wives. This study requires cultural sensitivity of nurses who care for the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elf-awareness would be the starting point to reach culturally competent nursing care.

Keywords: Cultural Competency, Immigrant, Marriage, Qualitative Research, Transcultural Nur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 여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다문화 가정 이

주여성들은 결혼 후 일년 이내에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자국여성들 보다 건강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5].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에 중

본 논문은 세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ongsook Yih(Sehan University)

Tel: +82-61-469-1309 email: yihb@sehan.ac.kr

Received November 19,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Revised December 24, 2015

Published January 31, 2016

심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언어장벽, 지리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7,13].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통역서비스 실시 및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직원 고용 등 기본적인 자구책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선진국의 다문화 관련 간호학계의 접근 방법을 보면 문화에 기반을 둔 간호제공을 위해 돌봄대상자가 가진 고유의 음식, 종교, 건강과 질병 관련 신념 및 행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6,14]. 이는 가족단위 이민일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 단독이민보다 자국의 전통문화를 고수 및 유지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단위 전체에서 고수하고 있는 건강관련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6,14]. 따라서 주문화속에서 타문화를 지닌 가족전체 구성원들이 행하는 자국문화에 기반을 둔 건강관련 다양한 행위특성들은 전문적 돌봄현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국사회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이민 유형이 가족단위의 이민보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단독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국 다문화의 특징이다[20]. 일반적으로 주문화권인 한국남성과 타문화권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은 한 가족내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문화권 구성원이 주문화권에 동화 및 통합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9].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가족전체 구성원이 동일한 문화권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민자의 경우 자국문화를 가족 구성원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주문화권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경우 자국의 음식, 종교, 건강과 질병관련 신념 등은 문화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6,14]. 그러나 한국과 같이 타문화권자가 주문화권 가족내에 단독으로 유입된 단독이민자의 경우 기존 서구의 다문화 간호와 다른 간호패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간호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연구는 다문화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 및 생식실태조사, 상담서비스, 건강관련 인식도 조사 [8,15,16,20]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임상간호사들의

다문화 환자 돌봄실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문화를 지닌 돌봄대상자들에게 간호실무자들은 문화에 기반을 둔 어떠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다문화 중심 간호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간호서비스 제공자들의 시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보편적 간호행위 내면에 배어 있는 다문화 환자에 대한 그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문화에 기반을 둔 간호를 제공해 가는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한국 간호서비스제공자들의 돌봄 경험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중심 간호서비스의 현 주소를 서사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서사연구방법은 경험의 서술 속 이야기에 내재된 의미들을 다양한 언표적 특징을 통해 파악해 낼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21]. 또한 타 질적 연구방법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나 맥락중심 의미파악 보다 이야기 구성 원리(행위자, 행위동기, 행위결과)를 파악하여 그 속에 내재된 언표적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분석 틀로 삼는 연구방법이다[21]. 뿐만 아니라 서사연구방법은 이야기를 구성해 가면서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자아와 만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일부 간호학 연구에서는 억압받는 여성 또는 외상 후 증후군을 지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3, 21]. 본 연구는 기존 간호교육체계 내에서 다문화간호를 접하지 않은 세대의 간호서비스제공자들이 문화중심 돌봄을 제공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어떻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지 파악해 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사분석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를 파악해 냄으로써 돌봄제공자인 화자가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및 행위 그리고 인식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M시에 소재한 여성전문병원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소 8년에서 최고 15년의 임상경력을 지닌 대상자들이며 대학에서 다문화간호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이다. 이들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모두 근무한 경력을 지녔으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및 그 자녀를 돌본 경험이 5년 이상 된 대상자들이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14-02)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 연구참여 동의를 밝힌 대상자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전에 주지시켜 줌으로써 개인적 비밀보장의 권리를 엄격히 따르고자 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참여자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에 따라 병원의외실 및 휴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질문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돌봄대상자를 돌보는 경험은 어떠십니까?’ 라는 연구질문을 시작으로 다문화, 국제결혼, 양육, 돌봄전략, 다문화간호 등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돌봄제공자가 지닌 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와 연계된 돌봄행위 등의 관계성을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구성해 가고 있는지 파악해 내고자 했다.

2.3 자료분석

필사된 인터뷰 자료들은 정독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료가 지닌 전반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해 내고자 했다. 이어서 서사분석방법의 핵심인 이야기 구성 원리를 파악해 내기 위하여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화자가 누구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문화에 대한 민감성이 미약했던 과거부터 문화중심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시점까지의 이야기 구성 속에 표출된 돌봄행태를 파악하여 그 속에 내재된 언표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즉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떠하였으며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지를 언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는 요실금 질병관에 대한 서사분석에서 다루어진 분석 틀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20]. 이어서 도출된 주제에 대해 결혼이주여성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자 1인과 질적간호연구자 1인의 최종 검정을 거쳐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질 확보를 기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정자녀를 돌본 여성전문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화자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문화 중심시각, 상·하위문화 수용시각, 그리고 타문화 중심시각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화자의 시각에 따라 어떠한 돌봄행위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표적 특성을 가미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첫 번째 분류된 이야기 속 화자의 시각부터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Table 1. Dimensions of Narrative in the Story of Caregiving for Foreign Wives

Domain	Viewpoints of narrators	Dimensions
Frame of culturally competent caregiving	Ethnocentric viewpoint	Perception: "Why they do that like this?"
		Behavior: Common caregiving
		Result: One way communication
	Acceptable viewpoint	Perception: "It's quite acceptable", "Maybe it is"
		Behavior: Interactional caregiving
		Result: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Culture-based viewpoint	Perception: "It must be"
		Behavior: "Tailored caregiving"
		Result: Support and competency

3.1 이야기 구성 시각

돌봄제공자인 화자가 이야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누구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속 화자의 중심시각이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자국문화 우월적 시각이 강할 경우 이를 ‘자문화 중심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타문화에 대한 화자의 경험과 자국문화 우월적 사회적 통념상의 차이를 자각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적 시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상·하위문화 수용시각’으로 보았다. 그리고 화자의 경험으로 우월주의적 자문화중심 시각이 타문화와 접촉 속에서 재정립되어 나타날 경우 이를 ‘다문화 중심시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자문화 중심시각

자문화 중심 시각은 화자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지배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야기 구조이며 자국문화에 대한 강한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 시각은 타문화권 대상자를 처음 대면하게 되는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야기 속 화자는 관찰자의 시각으로 대상자가 나타내는 표면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특정문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동남아시아 산모분들을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병원에서. 그때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없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심지에 몇 십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저 사람은 분명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다. 인제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처음 딱 봐도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아내는 철없이 오래 입원해 있으려고 하고.... 아이는 그냥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산물 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애는 아파 울고 있는데 엄마는 복도에 나와서 같은 나라에서 온 다른 엄마들이랑 수다 떨고 하는거 보면 아이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의 이야기 속 화자는 시종일관 대상자를 관찰하고 그 행동을 비판하는 우월적 위치에 화자 자신을 위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을 경제적 목적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배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자문화 중심시각 속 화자는 타문화권 대상자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작용하고 있다.

3.1.2 상·하위문화 수용시각

상·하위문화 수용시각은 한문화권내 주문화와 그 속에 새로이 유입된 소수타문화에 대한 범위를 상·하위문화로 보았으며 화자는 여전히 자국문화 중심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타문화를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함께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경우이다. 즉 자국문화와 다른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즉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나는 화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외국인 환자라는 전제에 대한 낯설

음이 열어지고 돌봄을 받는 일반 대상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이야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투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말이 빠르고 하이 톤이 많으세요. 그러니 그 문화에서는 일상적 이야기가 저희가 듣기에는 불편한거죠 병원안에서 주위는 아랑곳 않고 자기네 언어로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고...우리랑은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게 많으니까 좋게 보이지는 않는거죠 근데 처음엔 너무 낯선 사람이란 느낌이 들지만 자주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 산모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무더지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한 낯설음에서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서 다름을 이해하고자하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하위문화 수용시각에서는 자국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타문화에 대한 내면적 이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3.1.3 다문화 중심시각

다문화 중심시각은 화자가 타문화권 돌봄 대상자를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통념화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경험속에서 재정립된 실체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타문화권 돌봄대상자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다문화 중심시각 속 화자는 대상자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의지가 피력되고 있다.

...(중략)언어소통이 서로 잘 안되니까 산모분이 옆에 있지만 보호자나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질문하거나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곤해요. 그리고 남편(한국인) 되시는 분도 “우리아내는 외국인인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지만 외국인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언어는 잘 몰라도 느낌으로 알아듣고 또 그분들이 할 줄 아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더라도 보호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모

분들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위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 아내는 외국인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이다. 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신경써주시고 더 배려해 달라’는 의미의 전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의도한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그 의미는 외국인 아내가 알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돌봄제공자가 무의식적으로 언어소통이 원활한 보호자와 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패턴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언어를 잘 몰라도 느낌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알아들더라도 산모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들으니까요” 라는 화자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대목에서 화자는 돌봄제공자로서 ‘외국인이니까 잘 모른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구가 연쇄적으로 몰고 올 파장은 무엇이며, 무엇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중심시각은 돌봄대상자 중심의 옹호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3.2 시각에 따른 행위분석

이야기 속 화자의 시각에 따라 이어지는 돌봄행위와 그 결과를 언표적 특징에 따라 세분화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3.2.1 자문화 중심시각의 행동 분석

특정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속 화자는 행위를 취함에 있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인식) 그래서 무엇을 하였고(행위) 그로인해 파생된 결과는 무엇인지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왜 저러나”

화자가 돌봄제공자로서 다문화가정 산모나 그 자녀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무엇인지에 따라 화자가 행하는 행위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화자가 지닌 타문화권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았으며 이를 언표적 특징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자문화 중심시각 속 화자는 돌

봄대상자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우위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야기 속 언표적 특징으로도 알 수 있듯이 “왜 저러나” 등의 표현은 상대방이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중략)옷을 벗겨보니 정말 어쩔 이렇까 너무하다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애기를 씻기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중략)애기 아빠는 처음 딱 봐도 힘들게 일하는 분 같은데 데 혼자서 1인실 있려고 하는거 보면 참 철없고 왜 저러나 싶죠 아무래도 시골에서 시부모님과 있기는 불편하고 산모들이 다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농사 일 해야 하고 힘드니까 1인실 있으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화로 뭐라 뭐라 해서 다들 1인실 입원하라고 하는가 봐요.

양육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 부모,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 철없는 아내 등은 다문화가정 산모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문화권 돌봄대상자를 처음 대면한 시점에서 돌봄제공자들이 가지는 일반적 인식정도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2) 행위: 보편적 돌봄제공

돌봄제공자가 돌봄대상자에게 어떠한 돌봄을 제공해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자문화중심 시각에서 행하는 돌봄행위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해결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통역가능한 제 3자의 도움 및 같은 문화권 산모들과의 병실배정 등이 보편적 돌봄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자의 이야기 속에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돌봄제공행태이나 자문화 중심 시각에서 주로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

...(중략)산모분들이 오시면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모시고 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분이라도 제대로 알아듣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중략)저희는 주로 외국인 산모 분들은 같은 병실로 배정을 해드려요 산모 분들이 서로 금새 친해지시고 그분들 남편들 끼리도 금새 친해지세요

(3) 결과: 일방향적 의사소통

자문화 중심시각에서 주로 행하고 있는 보편적 돌봄 행위는 결과적으로 돌봄제공자 중심의 일방향적 의사소통과 일맥상통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답형 질문과 답변이 환자 상태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알아들었겠지”라는 화자의 표현은 행위자중심의 일방통행적 돌봄행위를 반추하는 강렬한 언표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중략) 산모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알았다는 신호를 잘 해주세요. 처음에는 알아들은 줄 알거든요. 또 저런 단답형으로 많이 질문을 해요. 언어소통이 잘 안되니까 길게 설명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그렇다고 답을 한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러니 알아들었구나 하는거지요.

이상과 같이 자문화중심 시각에서는 특정문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제공 행위에 있어서도 다문화산모들의 행위에 대한 내면적 이해보다 표면적 행위에 대한 대응 또는 돌봄을 위한 편리성 수준에서 돌봄제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2 상·하위문화 수용시각의 행동분석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경계가 약화되고 타문화에 대한 인지 및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어지는 이야기 속 화자는 행위를 취함에 있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인식) 그래서 무엇을 하였고(행위) 그로인해 파생된 결과는 무엇인지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돌봄제공자로서 타문화에 대한 생소함이 점차적으로 열어지는 시점에서 타문화권 돌봄대상자에 대해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부분이다. 대상자가 표출하는 행위에 대한 표면적 반응보다 맥락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내면적 변화가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는 “그럴 것 같아요” 등의 언표적 표현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중략)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애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는 다른 엄마랑 수다 떨고 있으니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음... 아픈 아이에 대한 방치라기 보다 아이를 위해 다른 엄마들과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아이는 아프고, 말은 잘 안통하고, 낯설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말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중략) 따뜻한 지방이고 비 자주 오고 또 금방 해나고 집 옆에 강이 있으니가 위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묵욕하고 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처럼 이런 기후조건이라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낯선 곳에 와서 그래도 잘 적응해가는 것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위의 언표적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관점을 생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대한 연민은 관심과 애정의 또 다른 표현임이 드러나고 있다.

(2) 행위: 상호작용적 돌봄

수용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는 인내와 칭찬이 가미된 상호작용적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화자가 돌봄 대상자들의 내면적 세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중략) 외국인 산모분들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다 이해해요. 그리고 설명 드린 데로 시행하려고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또 그렇게 잘해주시니 저는 감사하죠. 그러니 더 자주 손잡아 드리려고 하고 더 스킨십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수용은 표면적 행위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넘어 상호이해와 교류를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손잡아 주고 자주 설명하는 행위는 보편적 돌봄제공 차원에서 행해지지만 상호작용적 돌

봄행위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제공의 타당성이 서로 끈끈하게 엮여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결과: 수용과 이해

수용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적 돌봄행위에 대한 평가는 수용과 이해라 볼 수 있다.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의 변화는 상대방의 행위를 포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그로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했겠어요->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거예요->안심이다 싶고 감사하고 그래요”.

...(중략) 얘기들 예방집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동남아 산모들의 경우 집 가까운 동네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 싸고 접근성도 좋을 텐데 설명을 드려도 무조건 입원했던 병원에서 해야 되고 비싸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 믿어요.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남편분도 지적으로 떨어지시는 분이 많고 부인에게 별 관심을 안가져 주세요. 그러니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분들이 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분들은 한국 산모분들에 비해 굉장히 순응적이세요.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시고.. 도와달라는 의미일거라 생각해요.. 설명드린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환하게 웃으면 안심이다 싶고 감사하고 그래요.

위 내용에서 화자는 돌봄대상자가 느낄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나타내는 반응의 내면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 또한 당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돌봄제공자로서 느껴지는 안도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소통이 중심이 되는 수용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는 돌봄대상자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낯선환경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행위들이었음을 공감하는 측면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 또한 돌봄대상자들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넓이만큼 낯선 환경에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가를 비로소 공감하기 시작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다문화 중심시각의 행동 분석

다문화 중심시각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화자가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수용적 입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다문화중심 돌봄제공자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타문화권 돌봄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 대상자 중심(다문화 중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주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돌봄으로 이야기 속 화자가 구성하고 있는 행위 발생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 “그래야만 해요”

돌봄제공자의 입장에서 타문화권 돌봄대상자를 어떻게 옹호하고 대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고 있는 부분이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대상자를 위하는 것인지 대상자 중심시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자하는 인식의 변화가 “그래야만 해요” 등의 언표적 표현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중략)외국인 산모나 엄마들이 오면 무조건 모르고 못 알아들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해요. 대부분 시어머니나 남편 또는 주위 분들과 같이 입퇴원 설명을 듣는데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엄마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 해요. 아빠나 가족에게만 무조건 설명하려고 무조건 가족만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을 가지고 정성껏 설명을 드려야하고 대화를 유도해 봐야 해요.

...(중략)이런 것 짚은 알겠지 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무엇이든 모르실거란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만 해요. 당연히 알겠지 가 아니고 모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돌봄제공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제공을 위해 의사소통이 수월한 가족이나 통역자를 중심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그러나 위 내용에서는 옹호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즉 돌봄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체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돌봄행위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행위: 맞춤형 돌봄

치료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화 중심 돌봄행위는 맞춤형 돌봄이며 돌봄대상자의 독립적 수행능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두는 돌봄행위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언어가 일단 안 통하니까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부족한게 최대로 어려운 점이긴 해요 그래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또 직접 해보라고해서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봐야해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중심 돌봄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넘어 돌봄제공자가 기대하는 것을 돌봄대상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시범-확인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설명중심이 아닌 대상자 맞춤형 행위중심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결과: 옹호와 자신감

치료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맞춤형 돌봄행위에 대한 평가는 보람과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편안하고 능동적인 돌봄이라 볼 수 있다. 타문화권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옹호해주는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치료적 돌봄제공자 유형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 옹호와 지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 양상으로 감사와 존중감이 돌봄대상자로부터 표출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제공자에게는 문화중심돌봄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는 행위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산모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병원을 나갈 때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길거리나 마트에서 만나면 정말 반갑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제가 못보고 지나가면 끝까지 달려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시범보인 것들은 꼭 지키려고 하시고 감사해하시고 저 또한 그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뿌듯하고.. 전 그분들이 편해요.

치료적 돌봄은 다양한 돌봄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행위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자신감은 대상자 및 상황에 대한 편안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본다면 다문화 중심 치료적 돌봄은 가장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편견 없이 대상자를 돌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자 모두 돌봄이라는 행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이 옹호-보람 등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여성전문병원 간호사들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어떠한 문화중심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기반을 둔 돌봄제공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와 연결되는 돌봄행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문화권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서 돌봄제공자가 지니는 자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타문화에 대한 시각은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다[2, 4, 11].

그러나 돌봄에 대한 질과 양상은 시간성에 기반을 두고 얼마나 타문화권 돌봄대상자를 접할 기회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타문화권 돌봄대상자를 대면한 시점에서는 자문화 중심 시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시점에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자문화를 중심으로 비교 대조되어 질 수 밖에 없으며, 특정문화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이 돌봄행위 근간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돌봄대상자의 건강돌봄 행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14].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자문화 중심주의 시각을 가진 돌봄제공자가 문화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자문화 중심주의 시각을 지녔어도 타문화권 돌봄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위해 자주 손잡아 주기, 스테이션 가까이 병실배치해 주기, 같은 문화권 대상자와 같은 병실 배정해주기, 더 자주 반복 설명드리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중심 돌봄서비스가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Spector[17]는 문화중심간호를 문화에 대한 감수성(Sensitivity), 적합성(Appropriateness), 그리고 역량(Competency)을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돌봄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발점을 기회 노출성에 두고 있다. 즉 접촉빈도에 따라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돌봄의 양상도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과 문화적응이 비례한다는 연구결과[12, 19, 20]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교육적 접근과 같은 인위적 중재요소 없이 새로운 현상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알아가는 과정 즉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다문화중심 돌봄제공자는 타문화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편안함은 대상자의 내면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하여 Spector가 언급한 환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17]. 즉 상대방의 내면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하며, 이 시점이 상대방의 반응양상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는 시점임을 본 연구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보편적 전문간호와 문화중심 간호의 차별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타문화권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언어장벽이다[6]. 이에 대해 맞춤형 돌봄제공자 유형에서는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자중심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환자중심 의사소통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치료 상황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이다.

다문화 윤리강령[1]에서는 이를 자기결정권 행사로 언급하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어야만 한다. 본 연구의 맞춤형 돌봄제공자는 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초기 대면부터 보호자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돌봄제공자는 설명-시범-시행기회제공-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자신의 치료에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여부는 문화중심간호 시행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맞춤형 돌봄제공자는 돌봄제공자로서 인식의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르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란 인식과 “이것 정도는 이해했겠지”란 자기 위안적 타협이 아닌 “모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설명해야한다”는 인식은 돌봄서비스의 출발점을 달라지게 하고 있었다.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다. 보편적 돌봄제공과 문화중심 돌봄제공은 이렇듯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결과는 환자로서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옹호자로서 돌봄제공자를 위치시켜줌과 동시에 대상자는 자신의 몸의 주체자로 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중심 간호의 출발을 인식의 전환으로 보고 있는 서구의 많은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5, 18]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많은 논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음식과 종교 등에 대한 측면은 화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지 않았다[6, 14]. 이는 가족단위 이민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단독이민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동화 및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한 특정 종교의식이나 음식과 관련된 특징적 돌봄제공 사례는 본 연구에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중심 돌봄은 어떤 종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는가? 라는 양적 범위의 돌봄수행이 아닌 돌봄제공자로서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습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행되는 돌봄행위이다. 또한 기존간호교육체계에서 다문화 간호를 접하지 못한 세대의 임상간호사들이 온전히 시간성 및 기회노출성에 근간한 경험에 의해 문화중심돌봄을 체득해 간 과정을 인식의 흐름을 통해 세밀히 제시해 주고 있는 점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특정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이 결과를 일반화하 데는 제한점이 있으나 도출된 결과는 간호교육체계 내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을 통해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습득한다면 초기 타문화권 대상자와 대면 시점부터 효율적으로 문화중심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다문화 간호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은 세대의 간호사에게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 민감성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문화 간호가 교과과정

에 편제되어 다문화 교육을 받은 임상간호사와 이러한 교육이 부족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후속절차로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 간호교육체계에서 다문화 간호를 접한 경험이 없는 임상간호사들이 어떻게 타문화권 돌봄대상자를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서사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화자의 시각에 따른 행동과 그 결과를 파악해 냄으로써 이야기의 구성 원리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야기 속 서사적 특성인 연표적 특징을 파악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타문화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와 간호행태를 비판적, 수용적 그리고 맞춤형 돌봄 제공자적 입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References

- [1] FA. Carnevale, B. Vissandjee, A. Nyland. A. V, Bonin, "Ethical considerations in cross-linguistic nursing", *Nursing Ethics*, 16(6):813-826, 2009.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09343622>
- [2] M. Chalanda, "Brokerage in multicultural nursing",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42(1):19-26, Jan-Feb, 1995. DOI: [http://dx.doi.org/10.1111/\(issn\)1466-7657](http://dx.doi.org/10.1111/(issn)1466-7657)
- [3] N. Choi, "Narrative Analysis on Survivor's Experience of Daegu Subway Fire Disaster: The Hypothetical Suggestions for Disaster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407-418, 2005. http://www.kan.or.kr/kor/sp_journal/sp_journal01v2.php?year=2005&issue=2&volume=35&page=40
- [4] L. Culley, "A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in health care: the challenge for nurse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564-570, 1996.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96.tb00020.x>
- [5] T. Dawes, "Multicultural nursing",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33:148-150, Sep-Oct, 1986. DOI: [http://dx.doi.org/10.1111/\(issn\)1466-7657](http://dx.doi.org/10.1111/(issn)1466-7657)
- [6] F. Festini, S. Focardi, S. Iscogni, C. Mannini, S. Neri, "Providing Transcultural to children and parents: An exploratory study from Ital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1(2): 220-227,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9.01274.x>
- [7] GH. Jeong, HJ. Koh, KS. Kim, SH. Kim, JH. Kim, HS. Park, et al.,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261-269, 2009.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261>
- [8] HR. Kim, NM. Hwang, IS. Jang, KJ. Yun, BJ. Kang. *Reproductive health statu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9] CS. Koo, "Study on the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8):319-360, 2007.
- [10]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tudy of reproductive health for married women immigrants in 2009[Internet]. Seoul: 2012[cited 2012 August 18], Available from: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ls.jsp.(Accessed Nov.,19,2014)
- [11] E. Labun, "Cultural discovery in nursing practice with Vietnamese cl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6):874-881, 2000.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1.01926.x>
- [12] SH. Lee, YJ. Lee, SY. Kim, SJ. Kim,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9(6): 899-910,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99>
- [13] HS. Lim,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3): 243-255,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43>
- [14] A. Narayanasamy, "Transcultural Nursing: How to nurses respond to cultural needs?", *British Journal of Nursing*, 12(3):185-194, 2003.
- [15] MN. Park, SY. Choi, "Development of reproductive health program and identification of effect for married wome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3): 248-258,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3.248>
- [16] DH. Seol, HS. Kim, HS. Yoon, HK. Lee, KT. Yim, KS. Chung, et al. *Foreign wives'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 [17] RE. Spector.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6th ed. p.3-28,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4.
- [18] I. Walker, JA. Clendon, "Growing multicultural nursing workforce-Identifying the stress points", *KAI TIAKI Nursing New Zealand*, 18(8):12-13, september, 2012.
- [19] YM. Yang, HH. Wang, "Life and health concerns of Indonesian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1(3):167-176, 2003. DOI: <http://dx.doi.org/10.1097/01.jnr.0000347633.72476.4a>
- [20] BS. Yih, "The health related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5): 477-487, 2010. 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SOKHBY_2010_v22n5_477
- [21] BS. Yih, "The life stories of elderly korean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A narrative stud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2): 237-248,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2.237>

이 봉 숙(Bongsook Yih)

[정회원]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9년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심리간호, Qualitative Research